

## 폴란드의 2008년 공적개발원조

폴란드는 평화유지군 파병 및 공적원조(ODA)의 강화를 통해,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강화하고, 중유럽 중심국가로서 중동부유럽에 대한 정치,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. 다음은 시코르스키(Sikorski) 폴란드 외교부장관이 2.27(수) 발표한 폴란드의 2008년 공적개발원조 계획의 주요내용임.

- 2008년 공적개발원조액 총액: 1억 1,000만 즈워티(약 4,500만미불)
  - 2007년 9,000만 즈워티 대비 2,000만 즈워티 증액
  - 공적개발원조의 목적: 세계정세의 안정에 기여, 수원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강화
  - 주요 수혜대상국: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, 그루지아, 몰도바, 아프카니스탄, 탄자니아, 앙골라, 팔레스타인

### □ 주요 수혜국 및 사업 내용

- 벨라루스
  - 2008년 폴란드 ODA 최대 수혜국으로 2,600만 즈워티(1090만 미불) 수혜
  - 주로 Belsat 위성TV 사업에 사용
- 우크라이나
  - 2008년 수혜액이 1,600만 즈워티(666미불)로서 2번째 수혜국
  - 수혜액의 50%는 NGO지원에 사용되고, 50%는 정부사업에 사용 예정

- 아프카니스탄
  - 850만 즈워티(354 미불) 배정
  - 이중 600만 즈워티는 정부 행정개선에 지원 예정
  
- 이라크
  - 시코르스키(Sikorski) 외교부장관은 이라크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우선 사업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사업집행에 수반되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.
  -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라크가 ODA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함.

【폴란드 주재원 제공】